

브라질, 중국산 휴대폰 수입 규제

수입량 폭증으로 전자산업 타격 ... 대당 수입가격 절반수준 불과

브라질이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 정부가 중국산 저가 휴대폰의 수입 폭증으로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1월10일 보도했다.

브라질 전기전자산업협회(Abinee)에 따르면, 2011년 휴대폰 수입량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월 54%에서 8월에는 85%로 증가했고 2011년 브라질에서 판매된 휴대폰 5700만대 가운데 중국산이 2000만대에 달했다.

Abinee는 “중국산 휴대폰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브라질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중국산 휴대폰의 수입가격은 1대당 12달러(약 1만3900원)에 불과해 브라질산 휴대폰 가운데 가장 저렴한 27달러(약 3만12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Abinee의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국산 휴대폰 수입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의류와 원단의 수입 증가로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입 관세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국산 의류와 원단의 수입 과정에서 물량을 조작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불공정 사례가 잦아 자국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이루어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12월19-20일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수입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메르코수르 정상들은 협의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도 아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역외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고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유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1>